

# 1리터의 눈물

2016.08 – 2018.10

illustrator, photoshop

## 기획의도

기존 1리터의 눈물이라는 책을 리디자인 함으로써 책의 주제를 더 확실하게 드러내고, 조금 더 읽고싶은 책으로 탈바꿈하게 하기 위해 리디자인하였다.

## 디자인 컨셉

눈물의 컬러인 하늘색을 메인 컬러로 설정하여 희망차면서도 비극적인 이중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하였고, 그 속에 웃고 있는 아아를 배치하였다. 그 밖에 달, 종이배처럼 아아를 상징하는 소재 또한 넣었고, 책 선물 시 쓸 수 있는 엽서까지 포함시켰다.





#### 기존 책표지

15세의 아야는 자주 몸이 말라가고 넘어진다. 그렇게 아야는 병원에 가보고 첫 입원을 하게 된다. 아야는 입원을 하면서 자신이 '척수소뇌변성증'이란 것을 알게 되고, 그 병이 불치병이고, 앞으로 몸이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아야는 건강했던 모습의 자신을 기억하며 괴로워하고, 병세가 점점 심해져 발음도 잘 못하고, 입원생활과 잠깐 집에서 보내는 생활이 반복된다. 그리고 아야는 양호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지내기로 하며 가족들에게 폐만 끼친다는 사실에 괴로워한다. 하지만 아야는 재활운동을 하며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항상 웃음을 유지한다. 그러나 몸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

#### 타이틀 캘리그래피

1리터의  
눈물  
1리터의  
눈물  
1리터의 눈물  
1리터의  
눈물

1리터의  
눈물  
1리터의  
눈물  
1리터의  
눈물  
1리터의  
눈물

1리터의 눈물  
1리터의 눈물  
1리터의 눈물  
1리터의 눈물  
1리터의 눈물  
1리터의 눈물  
1리터의 눈물  
1리터의 눈물





